

하루를 시작하며



조미영 여행작가

에곤실레(Egon Schiele)는 20세기 초반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화가다. 구스타프 클림트가 질투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끊임없는 기행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경험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가 극심했다. 그의 작품에 유독 공포와 불안이 도드라지게 표현되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그런데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자 군대에 갈 처지가 놓인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는 징집을 피하기 위해 발악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은 어떻게 갈까?

가까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진터로 가야만 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 군대에서 돌아온 후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창궐하고 임신한 아내가 먼저 이 병으로 죽은 뒤 4일 만에 에곤 실레 역시 스페인 독감으로 죽는다. 당시 그의 나이 28세다. 스페인 독감은 이후 2년여 동안 전 세계에서 2500만 명에서 5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약 1700만 명으로 추정하는데 스페인 독감은 그보다 2-3배 많은 셈이다. 이렇듯 세상은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이다. 우리가 지금 겪는 코로나 사태도 그렇다. 이처럼 이동의 제한이 많았던 적이 있을까 싶다. 올 초까지 TV를 켜면 나오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해외여행이었다. 세상 구석구석을 살

살이 찾아다니며 온갖 방식의 여행 예능이 TV를 점수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각자의 영토 안에 공공 갇힌 채 관련 업종의 산업은 존폐위기에 놓이는 처지가 되었다. 유망했던 기업들이 휘청거리는 걸 보지만 속수무책이다. 하지만 인류는 위기의 순간에 변화를 모색하며 발전했다. 어쩔 이 순간은 절망이 아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절박함에 의한 노력과 무한 상상력의 발현으로 혁신을 앞당긴다면 이전보다 나은 무언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은 생각의 사고를 여는 것이다. 그동안 관습처럼 했던 일들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접근방식을 찾아야 한다. 먼저 행정이 열린 사고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비대면 시대의 관광, 의료, 교육 그리

고 문화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취소를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행정에 그에 맞는 정책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 기존의 틀에 새로운 방식을 끼워 맞추는 행정으로는 혁신을 얻을 수 없다. 과감하게 변화해야 한다. 또한 기술어가는 기존산업에 공격 자금을 부어댄다고 되살아나지 않는다.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흡수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 일들은 소수의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다. 모두가 기존 사고의 틀을 내려놓고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걸 쌓는 심정으로 노력해야 한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서 모두의 노력과 지혜, 열린 사고가 결합하여 지금의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길 바란다.

사설

도의회가 바로 서야 제주가 산다

'제주도의회가 바로 서야 제주가 산다'는 의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함을 뜻합니다. 도의회가 제11대 후반기 원구성으로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된 감시와 견제기능을 기대하는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도의회와 도가 만나 원만한 협조를 다짐했지만 원희룡 도지사의 대권행보, 행정시장 임명강행, 조직개편안 등에 부정적 시각을 여실히 보여 향후 의회 역할 강화와 맞물려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지난 13일 원지사와 후반기 의장단과의 간담 자리에서 좌담수 의견을 비롯한 의원들은 부정적 시장 임명강행, 조직개편안 등에 대해 예상대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원지사는 이를 의식한 듯 "도의회 지적 부분은 최대한 성의로 개선 노력을 하고, 중·장기 분야는 의회와 계속 의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다수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도 조직개편안 상정 보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겉으로 제주시설 관리공단설립 조례 문제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였지만 최근 부직격 의견 행정시장 임명강행, 대권행보 원지사 등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증분입니다. 도의회가 앞으로 집행부에 대해 과거와 다른 제 목소리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도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지방자치의 이끄는 양대 축으로써 제2공항, 포스트코로나, 지역경제 위기 등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도정을 얼마나 견제·감시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해 왔는지 반문해 봐야 합니다. 사회전반의 혁신에도 불구하고 의회내 혁신작업은 뒤늦게 야단이라는 지적도 되돌아와야 합니다. 또 후반기 도의회는 전국 최저 재정에도 불구하고 몇 십배 많은 서울 등을 따라가려는 도정을 집중 따져봐야 합니다. 도민들은 방대한 인력·조직, 연간 1000억원대의 대중교통 예산 등 주요 도정에 여전히 어리둥절합니다.

일몰제 해소 좋으나 녹지 파괴 염려된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공원 개발이 점점산증입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한 둘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당장은 토지 보상이 최대 관건으로 대두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에 들어서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배출되는 하수처리 문제도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제주시와 오동봉·중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르면 두 곳에 아파트 2200여세대가 건축되면 하루 3000t의 오수가 발생 합니다. 오동봉공원에 1432세대, 중부공원에 796세대가 들어선면 각각 하루 1971t, 1014t의 오수가 발생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오수는 제주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아파트 준공 시점과 공공하수처리장 완공 시점이 2025년으로 맞물려 있다는데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난관에 봉착

할 우려가 높습니다. 아파트 준공 시점을 늦추거나 입주시 하수처리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운영중인 현대화 사업은 2025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협의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지역이 처한 하수처리난의 심각성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미 하수처리에 과부하가 걸린지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행정에서 지난해 1월부터 하루 30t 이상 오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의 경우 준공시점을 2021년 이후로 미뤄달라고 안내하겠습니까. 하수처리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두 공원처럼 녹지공간이 서서히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심의 허파인 도시공원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때문에 행정이 도심녹지 공간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더 이상 파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열린마당

음식은 위생에 맞을 더해야



김동일 제주해양경찰서 1505호 조리사기보

요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의 집단 식중독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살모넬라균, 노로바이러스, 비브리오패균, 햄버거병 등 누구나 한번쯤 들어본 이 감염병은 잘못 조리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기본적인 위생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다. 여름철 감염병 대다수는 음식물이나 물, 사람 간의 접촉에 의해 전염되며 이들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장염, 구토, 설사, 두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본인은 7년간 제주해경 1500t급 경비함정에서 조리업무를 맡고 있다. 과거 호텔 뷔페식당 18년간 조리

경험이 있었으나 해양경찰 경비함정 높은 파도가 일 때 음식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지금은 경비함정 생활에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에서 25년간 요리사로 근무하면서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없었던 것은 음식에 대한 맛과 함께 위생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식중독 예방수칙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손 깨끗이 씻기, 상한 음식물 버리기, 익혀서 먹기를 준수하는 한편 식기류와 행주, 도마 등은 수시로 소독하고 삶아서 사용해야 하는 내용들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일상 생활에서 철저히 지켜야 식중독을 막을 수 있다. 과거 요리사 시절에는 겪지 못했던 함정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긴급출동 등 경비함정 승조원들과 소통을 하며 따뜻한 집밥은 아니어도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밥상을 차리면서 음식에 위생과 맛을 더하겠다고 다짐해본다.

뉴스-in

“김태엽 서귀포시장 과오 있으나 책임자”

원지사, 본인 인사철학 피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식석상에서 논란이 여전한 김태엽 서귀포시장 임명에 대해 세종대왕과 황희 정승의 사례에 빗대며 자신의 인사철학을 피력. 원지사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장·단점의 경중을 따졌을 때, 김 시장은 음주운전과 과오도 있지만 이보다 행정시 현장에서 공무원들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최고의 책임자라는 장점이 크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 이어 “제주도의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더 낮은 자세로 도민들께 봉사하며 본인의 과오를 반회한다는 전제로 김 시장을 임명했다”고 첨언. 백귀탁기자

흡을 통해 몸을 이완하고 숲 속 명상·걷기 명상을 통해 안정을 되찾고 편백나무 숲에서 맑은 공기·피톤치드·음이온 등을 마시며 면역력을 극대화하는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 산림휴양관리소 관계자는 “오는 22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 현영중기자

제주항공 운수권 배분 해명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요구한 선결조건 이행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이스타노조가 주장한 '제주항공 운수권 배분 특혜 논란'에 대해 제주항공이 해명 자료를 배포. 14일 제주항공은 보도자료를 통해 “운수권 배분 당시 제주항공이 배정받은 11개 노선 중 9개 노선은 타 항공사에서 신청하지 않은 단독 신청 노선”이라고 설명. 이어 “단독 신청 노선은 국토부에서 신청한 항공사에 바로 운수권을 배정함으로써 특혜가 아니다”라고 강조. 김현석기자

‘코로나19 위로의 숲’ 운영

○...서귀포시가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 방역·확산방지를 위해 수고한 종사자·시민들을 위한 '위로의 숲'을 마련. 위로의 숲에서는 스트레칭·호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현미열(제주대학교 간호대학장) 남편 군위오공 창환(한림공업고등학교 교감·향년 56세)께서 서기 2020년 7월 12일 03시 4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7월 15일(수요일) ▶발인일시: 2020년 7월 16일(목요일)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장 지: 남원 가족묘지

부고 남도희(제일장 의사 대표) 어머니 해남윤씨 정임(집사·향년 91세)께서 서기 2020년 7월 13일 19시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7월 15일(수요일) ▶발인일시: 2020년 7월 16일(목요일) 오전 8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빈소 ▶장 지: 해안동 가족선영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밀양박씨 규희(향년 92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아 들 김동완 며느리 이영희 기완 조순심 딸 김여선 사 위 양성화 연숙 연속 연희 신정환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밀양박씨 옥선(향년 80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일 포: 2020년 7월 15일 남 편 김중호 아 들 김현웅 며느리 홍지희 철웅

무연분묘개장공고(1차) 본 묘지는 '경상남도관광진흥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3조 규정에 의거 서귀포시에서 개장허가를 받아 아래와 같이 무연분묘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무연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공묘로 간주하여 일괄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2. 개장사유: 토지정리, 재산권 행사 등 3. 개장장소: 서귀포시 오동봉공원묘지 4. 개장방법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와 협의하여 정중처리 *연고자가 없는 경우: 신고자지 희망 후 무연공묘로 일괄 개장 5. 무연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신고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준제로15번길 10-8(상예동) ☎ 010-3306-5659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 0641760-6522 7. 신고시 구비서류 *공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호보, 가맹, 기타 증명서류 등 8.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 시일구간내에 시일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후가무 발견된 분묘에 대하여 이 공고로 알림.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공고를 합니다. 2020년 7월 15일 위공공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준제로15번길 10-8(상예동) 지사윤 ☎ 010-3306-5659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적을 미국식품질학의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하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